

[1] 형제들은 서로 섬길 것이며, 병 때문이나 혹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주방 업무에서 면제받지 못할 것이니, [2] 이렇게 함으로써 더 큰 공로와 애덕을 닦게 되기 때문이다. [3]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보조원들을 주어 근심 중에 이것을 행하지 않게 할 것이다. [4] 그러나 공동체의 규모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모든 이들이 보조원을 가질 것이다. [5] 만일 공동체가 크거든 당가 나 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, 더욱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주방 당번에서 면제받을 것이나, [6]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써 서로 섬길 것이다.

[7] 한 주간의 봉사에서 물러가는 사람은 토요일에 청소를 할 것이다. [8] 이들은 형제들이 손과 발을 닦는 데 사용했던 수건들을 세 탁해야 한다. [9] 그러나 당번에서 물러가는 사람과 당번에 들어올 사람은 다 같이 모든 이들의 발을 씻겨 줄 것이다. [10] 자기가 관리하던 그릇들을 깨끗하고 온전한 그대로 당가에게 돌려줄 것이며, [11] 당가는 그것을 (주방 봉사)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시 맡겨,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다시 받는지를 알도록 할 것이다.

[12] 주간 봉사자들은 식사시간 한 시간 전에 정해진 분량의 음식 이외에 한 잔의 음료와 빵을 미리 받아 (먹어서), [13] 식사시간 동안 불평이나 지나친 노고 없이 자기 형제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. [14] 그러나 주님의 축일들에는 (식사의) 마침기 도까지 견디어야 한다.

[15] 주간 봉사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은, 성당에서 주일 <아침기도>가 끝나면 즉시 모든 이들 앞에 꿇어앉아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청할 것이다. [16] 주간 당번에서 물러가는 사람은 "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신 주 하느님, 찬미받으소서" 하는 구절을 외울 것이다. [17] 이것을 세 번 외우고 나면 (봉사에서) 물러가는 사람들은 강복을 받으며, 이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"하느님 나를 도와주소서. 주여, 어서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" 하고 외울 것이며, [18] 모든 이들이 이것을 세 번 반복한 다음, 강복을 받고 들어갈 것이다.